



<곡성멜론 캐릭터 '로니'>

곡성 멜론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

곡성 멜론을 비롯해 담양 딸기, 여수 거문도 속, 순천 함초환, 광주 아채수(액상차), 남원 고로쇠 시럽 등이 농식품 파워브랜드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우리나라 산지 브랜드를 대표하는 2014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의성마늘'(대통령상)과 곡성 '기차타고 멜론마을'(국무총리상) 등 모두 22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광주·전남브랜드 가운데에서는 담양 '대숲맑은 딸기'와 여수 '거문도 해풍속'(원예농산물 부문), 광주 '잠든'(액상차)(일반식품 부문)이 각각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북 브랜드에서는 전주 '예담채'(딸기)(원예농산물 부문), 군산 '고마우미 미니 고구마'(일반식품 부문), 익산 '하림 즉석삼계탕'(전통식품 부문)이 각각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순천 '자연의 지혜'(함초환)과 남원 '달콤나무'(고로쇠 수액 농축시럽)가 일반식품 부문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장상을 받았다.

이번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은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추천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원예농산물, 전통식품, 건강기능성 식품, 일반식품, 외식 등 5개 분야에 걸쳐 전문평가단(10명)의 서류심사와 인지도, 현장, 제품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농식품 파워브랜드를 선정했다.

현장평가는 브랜드의 시장성과 경영체



담양 '대숲맑은 딸기' 선별 모습.

적합성, 유통관리, 정채수용도를, 제품평가는 디자인, 크기, 편리성, 기호도, 향·맛·질감 등을 평가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기차타고 멜론마을'은 공동 선별장에서 비파괴 당도 측정 선별라인을 통해 고품질의 멜론 네트와 고당도(15브릭스 이상) 제품만 선별·출하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매년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담양·봉산·장평 등 3개 지역농협과 3개 영농조합을 통합해 연합사업단을 구성해 담양에서 자체 육종한 '담향'과 '죽향' 딸기를 '대숲맑은 딸기' 브랜드로 출하해 도

소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여수 '거문도 해풍속'은 연중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과 화강암계의 청정한 토양에서 해풍과 해무를 맞고 자라 미네랄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한편 선정된 브랜드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시회를 갖고 ▲온라인 소풍몰(G마켓·옥션) 기획전 ▲공중파 TV 프로그램 홍보 ▲명절 농식품 홍보책자 제작·배포 등 농가소득 향상과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남원=백희성기자 bs8787@

농림부 주관... 국무총리상 수상

담양 딸기·남원 고로쇠 시럽 등

호남 지역 9개 브랜드 선정

내달 2~5일 전시회·TV 홍보

2014 광주·전남·북 농식품 파워 브랜드

유격	부문	브랜드(지역)
국무총리상	원예농산물	기차타고 멜론마을(곡성)
농식품 장관상	"	대숲맑은 딸기(담양)
	"	거문도 해풍속(여수)
	"	예담채(전주)
	전통식품	하림 즉석삼계탕(익산)
	일반식품	고마우미 미니 고구마(군산)
농식품 원장상	"	자연의 지혜(순천)
	"	달콤나무(남원)

나주 친환경 무상급식 '좋아요'

10개 초·중·고 설문조사

만족 90%·확대의견 79%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12일 "최근 나주 10개 초·중·고별 학교당 한 개 반 학생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에 대해 90%의 만족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9%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반면 잔류농약 검사만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을 믿을 수 없다는 응답도 14%나 나와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신뢰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도 42%나 나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나주시는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초·중학교 37개교 6066명의 학생에게 10억4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무안교육청 과학실험 연수

영암·신안 초등학교 60명 참가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과식)은 최근 5일간 무안과 영암, 신안 등 3개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 탐구실험 지도 능력 배양을 위한 초등학교 과학실험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일반교양 및 교과목과 과학과 교육과정의 실험을 중심으로 한 전공과목으로 편성해 진행했다.

전공과목 연수는 과학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습지도 이론과 모의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고등사고능력 계발을 위한 학습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차과식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과학교육에 대한 최신 정보교류를 통해 초등학교들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고 자율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해남군 '찾아가는 치과'

충치치료·불소도포 등 호평

해남군이 치과가 없는 지역을 찾아 이동진료를 실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해남군보건소는 12일 "치과가 없는 지역의 주민과 복지시설, 학교 등을 주기적으로 찾아가 이동진료를 실시, 올해 상반기에만 64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는 현재 해남읍과 화산, 황산, 문내, 북평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을 찾아 순회 치료진료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 1300여명에게 스케일링, 충치치료, 치아 발치, 불소도포, 틀니조정, 잇솔질 교육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6월에는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치과 이동진료 차량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해남=박희성기자 dia@

전북 소식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관람하세요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15·16일 오후 8시

죽음을 앞둔 남자의 아련한 사랑과 삶을 담은 멜로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감독 허진호)를 촬영 장소였던 군산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오는 15일과 16일 오후 8시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상영한다.

군산시와 (사)구불길이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배급사인 씨이더스 픽처스가 후원하는 '8월의 크리스마스' 상영은 군산에서 16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기획 당시 세트장이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던 '8월의 크리스마스'는 군산이 딱 맞는 장소가 됐고, 영화 대부분을 초원사건관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배경으로 군산에서 촬영했다.

군산시는 초원 사건관을 복원해 지난 2013년부터 체험 및 안내 시설로 활용하고, 이곳은 하루 평균 10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또 주인공 심은하가 연기한 배역 '다림'을 초원사건관 안내 도우미로 채용해 관객에게 친절하고 명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림이 주차단속을 위해 탕탄 차량인 '티코'를 포토존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모성보호 일직근무제' 시행

임신 여성공무원 등 제외

순창군이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전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북 도내 처음으로 '모성보호 일직근무제'를 시행한다.

'모성보호 일직근무제'는 임신중이거나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일직근무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이다.

군 분청 여성공무원은 3~4개월을 추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직을 시행하

고 있는데, 임신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하루종일 일직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현재 일직근무에 편성되는 여성공무원은 80명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20%에 달하는 여성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직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희망자 신청을 받은 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세 얼굴

"의회 의견 전달자 역할 최선 다할 것"

우 천 규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전북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에 건의해 나가는 전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일 선출된 전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우천규(52·정읍시의회의장) 신임 의장은 "시·군 건의문은 물론 지역 시·군 의장들이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들을 협의회가 의결하고, 지사실·관련 장관실 및 총리실에 발송하는 등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도록 하겠다"면서 "상임 부회장 약간 명

을 동부지역 6개 시·군에 우선 배려하고 서부지역, 북부지역 순으로 협의회 임

원 구성을 안내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협의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 출신인 우 협의회장은 제5대 시의회에서 경제건설위원장, 제6대 시의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6·4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7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미션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건설원 감정가
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매각의 상급 후 결정
현상 당시 요령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9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96-8701

NAVER **다들 물어봐** 농촌진흥청

단비플라워

죽아와원3단 근조와원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아주 싼 녹지지역
전원주택 및 사찰 부지 최적!
동일 조건에서 더 싼 땅은 없습니다.

· 지역: 보전녹지지역
· 지목: 전
· 면적: 3,716㎡
· 매가: 3.3㎡당 35만

투자유망
무안군 운남면 내리 학트인 해변가
전원주택지 적합

· 지역: 계획관리지역
· 지목: 전 및 대지
· 면적: 13,939㎡
· 매가: 3.3㎡당 11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지역: 1종 주거지역
· 지목: 전
· 면적: 1917㎡
· 매가: 3.3㎡당 120만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융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